전남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준공

해양 블루오션 창출 한몫할 것 기대 항만물류 관련 연구개발센터 등 구축

전라남도는 광양항에 추진된 해양 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최근 완료돼 새 로운 해양 블루오션 창출에 한몫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규 항만 건설로 유휴화된 광양항의 중마 일반 부두 및 컨테이너 1단계 4번 선석에 해양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준공을 마쳤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은 광양항 의 유휴 부두를 해운 항만물류 R&D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와 지자체(도·광양시), 여수광양한만공사가 122억 원의 사업비를투입해 해운 항만물류와 관련된 연구개발센터를 비롯 전시관, 성능시험실, 교육 시설, 사무실 등을 구축했다.

특히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으로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 베드와 함께 스마트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도 갖췄다.

이로써 광양항에 항만물류 R&D 분 야와 융복합 가능한 테스트 베드 클러 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항만물류산업 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클러스터에 입주가 확정된 곳은 1개 기관이며, 앞으로 여수광양항 만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성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준공으로 항만물류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경 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취업 등 경제적 효과도 유도해 코로나로 물 동량이 감소한 광양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 다.

김정환기자

전남도, 1월 명품숲에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 선정

이순신 장군 함께한 500년 된 소나무와 바다 어우러져



전라남도는 역사·문화적 가치 가 높은 올해 방문해야 할 1월의 남도 명품숲으로 목포 '고하도 이

충무공 곰솔숲'을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남도의 명품 숲을 널리 알려 휴식과 힐링 여행 명소로 관광자원화하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계절별 아름다운 숲 12곳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 표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이중 최 우수상을 수상한 목포 '고하도 이 충무공 곰솔숲'을 1월의 숲으로 결정했다.

목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만날수 있는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 숲'은 사계절 아름다운 곳이다. 약500년 된 소나무가 3ha 군락지를이루고 있고 숲에서 바라본 바다경관이 아름다워 마음까지 힐링

되는 명품숲이다.

공솔은 소나무과로 지역에 따라 해송(海松) 또는 흑송(黑松)으로 불리기도 한다. 잎이 일반 소나무 잎보다 억센 까닭에 곰솔이라고 부르며, 바닷가를 따라 자라 해송, 줄기 껍질의 색깔이 소나무보다 검은 빛을 보여 흑송이라고도한다.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은 임 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06일 동안 머물며 군사훈련을 시키고, 정유재란 때 이곳에서 배를 건조· 수리하는 등 수군 전략기지로 삼 아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곳이다.

숲 안에는 모충각과 이순신 장 군의 업적을 기린 유허비 등 역사 성을 갖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지(전라남도 기념물 제10호)가 보 존·관리되고 있다.

오득실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 은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 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숲이다"며 "전남의 숨어있는 명품 숲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 해 블루 이코노미의 블루 투어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난해 인구 1만명 당 인명피해 0.21명…전국에서 가장 낮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도 지표인 '인구 수 1만명 당 인명피해'가 0.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화재는 882건 발생해 전년 대비 38건(4.5%)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2019년 61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47.5%(29명)가 줄었다. 재산피해도 2019년 4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9000만원으로 27.5%(12억4000만원) 감소했다.

인명·재산피해 감소는 광주시가 화재진압, 구조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화재피해 저감에 노력했고 주택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증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화재발생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322건 (3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타 야외 154건(17.5%), 생활서비스 139건(15.8%), 자동차 89건(10.1%), 산업시설 76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500건 (56.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기 180건(20.4%), 기계 93건(10.5%), 원인 미상 51건(5.8%)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담배꽁초 154건(30.8%), 음식물 조리중 118건 (23.6%), 쓰레기소각 74건(14.8%) 순 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기기별로는 주방기기 165 건(33.1%), 차량부품 63건(12.6%), 계 절용기기 44건(8.8%) 순으로 나타났 다.

주방기기 중 가스레인지에서 123건 (74.5%)이 발생했는데 지난 2월 서구 유촌동에서 가스레인지 화재로 1명이 부상을 당하고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음식물 조리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32명 중 주거시설 20명 (62.5%), 기타 6명(18.8%), 비주거 5명 (15.6%), 차량 1명(3.1%)이 발생했는데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동구 계림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명, 부 상 3명의 인명피해와 4300만원의 재 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체 사망자 4 명 중 3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올해도 안전문화 확산과 신속한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들도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 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 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동파가구 무상지원 서비스 제공 '눈길'

최근 매서운 한파로 관내 수도 및 계량기 동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돌봄 이웃에 무상 수리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모 으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동구기본복지가이드라인 항목 중 '겨울철 동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돌봄 이웃 따뜻 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파예방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파에 얼어붙고 파열된 수도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커버 등을 무상지원·설치해준다.

서구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광주 서구는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기관'에 서구 보건소가 선정되어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보건소는 유스퀘어 광장, 운천호수공원, 풍암호수공원 등 관내 주요 금연구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클리닉 홍보, 금연 홍보물 배부, 금연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금연캠페인을 연중 추진하였다.

또한 기아자동차, 서부경찰서 등 만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쾌적 한 금연환경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금년도 금연환경조 성 우수사례 기관에 선정되었다.

남구 마을버스, 코로나19 딛고 '엔진 재시동'

광주 남구는 15일 "관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마을버스 714번과 715번 2개 노선에 대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이용객 급감 등의 영향으로 수개월에 걸친 기나긴 숨고르기를 끝내고 노선 일부 개편을 통해 운행 재개에 나선 것이다.

먼저 마을버스 714번은 지난해 3월 25일 운행 중단 이후로 10개월여 만에 엔진 시동을 건다. 이 노선의 경우 마을버스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이 변경되며, 이용 승객들의 주된 방문지와 동선을 분석해 승·하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광주역과 조선대 앞 구간이 새 노선에 반영됐다.

714번 운행 코스는 소태역~남구문화예술회관~유안초교~방림초교~남광주역~조선대~지산동 매일시장 입구까지이다.

북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재정이 비슷한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최우수·우수기관 각각 1곳씩을 선정했다.

특히 세외수입전담팀 구성, 징수보고회 실시, 실무자교육 등 징수율 제고 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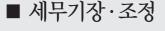
광산구, 미산초·월계중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광주 광산구가 미산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두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와 교사·학생의 의견, 가정통신문 설문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광산구보건소는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변 상인과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한 다음, 총 488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거리에는 금연거리 공고 표지판, 노면 특수표시제, 금연 표찰띠 등 금 연 구조물이 들어섰고, 올해 1년 홍보 기간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이 장소 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형택기자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전사업허가에대한 의견 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 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대한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600kW

2.사업개시예정일: 2021.12 2.사업 으여기가: 2021.12

3.사업운영기간: 2021.12~2041.11(20년예정) 4.의견제출기간및방법: 2021.01.06~2021.01.18까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길 171-37로 우편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거나 이메일 wjl2000n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명	신청인	용량	위치 및 면적
빨강발전소	이우정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주황발전소	이미현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노랑발전소	이완진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파랑발전소	이남석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초록발전소	이민희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보라발전소	유나영	99.9	공산면화성리395-14,15,23,25,62 500㎡

